

Market Index / 21일

코스피지수 ▼	1879.38 -18.98	코스닥지수 ▼	628.77 -9.05	유가(WTI, 달러) ▼	-37.63 -55.90	환율(원)	1USD 100¥	살매	1251.01 1164.98	팔매	1207.99 1124.92	살매	1EUR 1358.86	1CNY 181.90	팔매	1305.84 164.58
---------	-------------------	---------	-----------------	---------------	------------------	-------	--------------	----	--------------------	----	--------------------	----	-----------------	----------------	----	-------------------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기업대출 줄이어

2월중 1182억원 늘며 전월 대비 12.4% 폭증 가계대출은 부동산시장 위축 반영 소폭 줄어

1차산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월중 도내 기업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은 2개월 연속 감소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발표된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2월중 기업대출액은 1182억원이 늘며 전월에 견줘 12.4% 폭

증했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여파로 경기침체는 물론 관광객 유입 급감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제주지역 업체들의 영업난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른 전체 대출 규모도 13조3069억원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대출은 작년 동월(618억원) 대비 같절가량 늘었고 특히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도내 도소매 및 음식점업 등의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기업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2월중 도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16조2735억원으로 전월보다 284억원(0.2%) 감소했다.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부동산시장 위축세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 감소폭이 컸다. 한달간 281억원(-0.5%)이 줄었다. 신용대출과 적금담보 대출 등 기타가계대출도 3억

원 가량 소폭 줄며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2월중 제주지역의 금융기관 여신(850억원)은 전월(1099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수신은 1월(3201억원)에 견줘 2월(5672억원) 증가폭이 확대되며 대조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여신증가율은 8.2%(전국평균 6.7%), 수신증가율은 15.3%(전국평균 10.0%) 기록했다. 2월말 기준 여신잔액은 31조3060억원이며 수신잔액은 31조3551억원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남원농협 김달식 조합원이 20일 하우스감귤을 첫 수확 후 21일 본격 출하했다. 사진=제주농협 제공

하우스감귤 작년보다 이틀 앞서 맛본다

남원농협 김달식 조합원 가운재배... 어제 첫 출하

2020년 제주산 가운하우스감귤이 지난해보다 이틀 앞선 21일 첫 출하했다. 당·산도가 좋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하농가는 남원농협 하우스감귤 공신회 회원으로 지난해 10월 초부터 시설하우스에서 가운하는 극조기 가운으로 재배된 하우스감귤을 출하 전날인 20일 첫 수확했다. 향후 하우스 하우스를 비롯해 공판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500g~3kg 이내의 소포장으로 출하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출하는 5월 중순경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최근 3개년 도내 하우스감귤 첫 출하시기는 2017년 4월 25일, 2018년 5월 1일, 2019

년 4월 23일 등이다. 올해의 경우, 첫 출하일은 지난해에 견줘 2일 빠르다. 가격은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 기준 3kg당 4만원 내외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도는 11 Brix 이상, 산도는 1.0 미만으로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달식 남원농협 조합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만감류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제주산 고품질 하우스감귤 출하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농가수취가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하우스감귤 재배 규모는 842농가·339ha에 이른다. 백금탁기자

2조원 긴급투입... 소상공인 6000명 '숨통'

중기부 재원 투입·중앙신용보증재단도 200억 배정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이 바닥을 보이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보증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기업을 보증재원 2조원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재해 등 특수상황을 대비한 예비재원 1조원 가운데 200억원을 제주도에 배정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이용해 융자 지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2930억원 중 보증잔액이 50억원에 불과해 특별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6566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급기야 원희룡 지사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보

증재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재원 투입으로 기존 잔액 50억원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배정액 200억원 등 총 500억원 규모로 보증여력이 늘어날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추경에 추가로 확보될 재원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융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대한항공, 신제주 사원주택 매각

유동성 확보 위한 정리 차원 기존 근무자 체류비는 지원

한진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핵심자산 정리 차원에서 대한항공 소유의 제주시 연동 소재 사원주택을 매각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옛 KBS제주 뒤편에 위치한 사원주택 부지 매각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부지는 9450.9㎡(2864평) 규모이며, 매각 금액은 300억원대로 알려졌다.

사원주택은 1979년 호텔사업 확장 등에 따라 직원 복지를 위해 2층 빌라 형태로 22동으로 지어졌다. 대한

항공과 계열사 직원들의 거주 및 숙소로 이용돼 왔고 최근 입찰을 통해 새로운 주인을 맞았다.

현재 사원주택에는 약 100가구가 입주해 있으며, 매각 결정으로 연말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존 근무자를 위해 체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류자산과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최근 삼성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유류자산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파라다이스호텔 토지(5만3670㎡)와 건물(1만2246㎡)도 매각 대상에 올라 있다. 백금탁기자



한진그룹이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사원주택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상국기자

WE 호텔의 '봄 이야기' 숙박·피크닉을 한 번에

WE 호텔 제주가 '봄 이야기 패키지'를 출시, 오는 5월 31일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한라산 전망의 슈페리어룸 숙박을 비롯해 조식뷔페 및 스프링 피크닉 세트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 피부 미용과 피부 치료에도 좋은 천연화산암반수를 사용하는 실내 수영장, 야외 자쿠지 그리고 피트니스 룸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천연암반수 야외 수영장은 오는 4월 27일부터 오픈한다.

아울러 'WE with you, 힐링 포레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객들은 숲 산책과 숲 해설 그리고 명상호흡 등을 숲 해설사와 동행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23일까지는 조식을 인플루이나 레스토랑에서 단품 메뉴 선택이 가능하며 비타민D 면역력 검사, 정맥 영양 주사, 마인드 테라피 등 3가지 중 택일해 제공받을 수 있다.

레스토랑 이용객은 프로모션 메뉴를 제외하고 10% 할인 혜택과 함께 후식으로 건강 샐러드와 조각 케이크, 커피나 차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백금탁기자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숨은 동전을 찾아주세요!

동전이 저금통이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건 아닌지요?

잠자는 동전을 찾아 다시 쓰면
[연간 수백억원의 제조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는 동전을 가져오시면 지폐로 교환해 드립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 720-2541~4

새 아침, 젊은 신문!
한라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법무사 행정사

오병필 (吳柄弼)
법원 32년 업무경력

T. 721-3335 F. 724-3335
제주시 중앙로 248 아산빌딩 4층 (제주시청 남측 도남입구)

한라일보 창간 31주년

인간존중의 이념을 실천하는 경림산업

안전/품질/환경

-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선정
- 강소기업선정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 명문장수기업

생산품목 : KS단열판(1종/2종), 농수축산물상자, 포장재, EPS롤당, 조형물

경림산업주식회사
KYUNGGRIM INDUSTRIAL Co., LTD

본사 : 제주시 애월읍 신림8길 13
전화 : (064)799-0410~11 팩스 : (064)799-5410
Email : k-@hanmail.net, 홈페이지 : www.kyungrim.co.kr